

월남전의 소설적 수용과 그 전개양상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에서 안정효의 「하얀 전쟁」까지

정호응

문학평론가·영남대 국문과 교수

6·25 전쟁 소설이란 영역이 있듯이 월남전 소설이란 영역도 설정 가능할 정도로 월남전을 다룬 소설은 뜻밖에도 많다.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 그 대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송기원의 「경외성사」 「폐타 아래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 청년이 겪는 감정과 생각의 혼란을 그린 작품들이다. 월남인들의 알 수 없는 적의 앞에서 선 자리를 뒤돌아보는 주인공의 반성적 태도는 자유의 십자군이란 깃발을 내걸고 이루어졌던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의문의 제기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의 신분적 질곡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월남전과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객관적 탐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황석영의 「탑」 「낙타누갈」 「물개월의 새」 등이다. 월남전은 미제국주의와 베트남 민중 사이의 전쟁이며 우리는 블러드머니 40불에 고용당한 한갓 용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인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월남전과 한국군 참전의 본질을 날카롭게 떠올렸다. 여기서 「물개월의 새」를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 70년대 민중문학의 근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남 파병을 위한 특별 훈련소 밖에 자리한 물개월의 창녀와 파병 직전의 사병 사이에 싹트는 동류의식이 핵심인데, 그것은 동류의식은 그들 모두 이 세계의 질서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의 확인에서 생겨났다.

이처럼 세계의 질서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의 확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의 대부분이 가난한 농촌이나 도시 하층 출신으로 돈을 벌려고 자원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전쟁 참가란 낭만적 일탈 행위로써 해소하고자 했던 대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나아가서는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제삼세계적 위상을 그 속에 담고 있다. 이는 곧 현실 세계의 질서 중심에서 소외된 자리에 서서 그 질서를 넘어서고자 했던 70년대 민중문학의 본질과 맞닿는 것이니, 월남전은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이국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전개된 황석영의 월남전 문학은 장편 「무기의 그늘」에서 완성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미군 피 엑스를 통해 월남전의 경제 질서를 파헤침으로써 월남전의 본질을 선명하게 떠올리는데, 이는 1930년대 한국 사회를

일본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관계로써 이해하고자 한 채만식의 「탁류」의 그것에 비견될 수 있는 작가 특유의 성취이다. 이를 중심으로 여러 부류의 전형적 인물들의 삶을 엮어 월남전의 전체상을 복원하고, 이를 한국군 병사의 반성적이고 탐구적인 체험에 연결시킴으로써, 월남전과 한국군의 참전에 담긴 의미를 깊고 넓게 형상화하였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관찰자이자 화자인 한국군 병사를 수사대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처럼 폭넓고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말단 소총수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장의 직접성에 폐쇄되거나, 작가의 과도한 관념 개입을 초래해 실패한 작품들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같은 측면의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다.

뜻밖에도 많은 '월남전소설'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1977), 「인간의 새벽」(1980)은 월남전에 대한 장편으로서의 본격적인 접근으로 크게 주목받은 작품들이다. 「머나먼 송바강」은 말단 소총수의 체험을 따라 구축된 것이기에 소설 공간은 매우 좁다. 비록 그가 세계와 자아를 사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인의 면모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개 전투원의 체험폭을 넓혀줄 수는 없다. 게다가 작품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매혹적인 월남 처녀와의 사랑이 감상주의적 휴머니즘으로 질게 채색되어 있으니 월남전은 그 역사적·세계사적 의미와는 무관한 한갓 배경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머나먼 송바강」에서의 이같은 실패가 작가로 하여금 「인간의 새벽」을 쓰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전자에 비해 훨씬 장편다운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인물의 설정에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새로운 인물은 UPI특파원인 마이클 캐빈스이다. 전세계를 커버하는 대통신사의 특파원이기에 그의 시야와 경험의 폭은 한국군 말단 소총수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이 인물이 설정됨으로써 해서 「머나먼 송바강」에서는 그 성격조차 분명하게 부여받지 못하였던 인물들, 즉 푸이·키엠·트린 등이 분명한 성격을 부여받아 작품의 골격을 탄탄하게 구축하며, 그리하여 비로소 월남전의 전체상이 부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클이라는 인물설정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우리 소설이 냉전체제의 닫힌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제3세계적

인식의 확대·심화에 말미암는다.

월남전이 우리 소설의 중요영역으로

편입되는 핵심근거는 바로 그것이다.

6·25전쟁소설이란 영역이 있듯이

'월남전소설'이란 영역도 설정이

가능할 정도로 월남전을 다룬 소설은

뜻밖에도 많다.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그 대강을 살펴본다.

원리는 1975년 4월 30일 오전의 사이공 함락에 이르기까지의 숨막히는 시간축이다. 20여 개의 소재목 모두가 「○월 ○일 어느 때」로 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또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같은 구성원리를 특파원인 마이클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주목되어야 한다. 30대 후반의 허무주의자인 이 벽안의 미국인이야말로 이 작품의 기본형식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인물인 셈이다.

특파원 마이클의 설정으로 해서 가능했던 이같은 기본 형식 위에 작품의 골격이 구축된다. 월맹군 정규 장교인 트린과 마이클의 보조원이자 트린의 정보원인 루우 등의 공산주의자가 한 축을 이룬다. 그들에게 있어 월남전은 「항불독립투쟁의 연장선상」에 놓인 민족해방 투쟁으로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들의 반대편에 신문기자 투안으로 대변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놓여 있다. 그는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호하는데, 기실은 부패한 독재정권에 유착되어 있다.

이들 사이에 주인공 키엠과 푸이가 놓여 이 작품의 주제를 껴안고 있다. 그 주제는 두 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키엠을 통해 표출된다. 사이공대 폐파를 나온 엘리트이며 상류계층 출신으로 시를 쓰는 다감한 청년이었던 그가 민족해방전선에 뛰어들어 과격한 테러리스트로 변모한다. 그의 해방전선에 투신은 한 순결한 식민지 청년의 '역사의 당위성'과 '이념'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살인·방화

가 그의 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인간을 위한 이념'인데 그 이념을 위해 칼을 들어야 했기에, 그러나 신주단지 모시던 그 이념을 버리는 것은 패배이며 곧 자살이기에 그같은 딜레마는 그를 허무주의로 이끈다. 허무주의에 빠져들수록 더욱 과격한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기에 키엠은 절망한다. 키엠의 절망은, 그의 절규는 이 작품의 주제가 이념 저쪽의 휴머니즘임을 선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주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이면주제는 무엇인가? 「머나먼 송바강」과 「인간의 새벽」을 잇는 실질적인 주인공 푸이가 이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아버지는 프랑스로, 오빠는 베트남 정부군에, 그리고 어머니는 월맹군에 갓겼으며 한국군 병장을 거쳐 미국 특파원의 현지치가 된 여인, 자존심과 열등감, 강인한 생명 의욕과 니힐리즘 사이에서 번민하는 복잡한 내면의 여인, 그러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해 주려 하는 충분히 부드러운 빛"을 눈 속 깊이 지닌 여인, 이 여인 푸이야말로 오랜 세월 식민지 수탈과 내외란에 시달려온 월남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의 역사와 넉넉한 건담, 평화에의 간절한 희구를 표상한다. 바로 달빛 교묘한 송바강의 넉넉한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다. 푸이가 표상하는 이같은 것들이야말로 앞에서 살핀바 도식적인 월남전 이해라든가 이념대립 또는 이념혐오 등의 관념보다 훨씬 웅숭깊은 것으로 이 작품의 참주제를 이룬다. 이같은 푸이의 성공적인 형상화는 이 작품이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이다. 따라서 이면주제를 표면주제에 수렴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작품 말미의 탈출부분은 굳이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 작품의 인물설정의 구도가 80년대 문제작인 「무기의 그늘」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새벽」이 지니는 소설사적 의미가 간단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남전소설, 제삼세계적 시각 획득해

3부작으로 된 안정효의 장편 「하얀 전쟁」은 지금까지의 월남전 소설의 성과를 딛고 새로운 경지를 열고자 한 야심작이다. 1부의 중심 인물은 한기주 병장이다. 전투원인 그의 직접 체험을 통해 전쟁의 실상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비범한 지식인인 그의 지식과 생각을 통해 월남전의 성격이 넓고 깊게 조명된다. 이것만

이라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이 작품의 새로움은 월남전 체험을 인간 실존의 문제에 연결시킨 데 있다.

나는 상황판에 찍찍 휘갈겨 쓴 내용들을 읽으며 괴이할 만큼 거대한 동물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여기저기 굼아터지는 광경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짐승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고 수많은 벌레들에게 조금씩 뜯어먹히는 중이었다. 진물이 흐르고, 피가 고름에 섞여 질질 흐르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관절이 푹푹 잘려나가도 거대한 짐승은 멀거니 서 있기만 했다. 우리들, 병사들은 그 괴물의 고름이 질푼하게 귀 부스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사람만큼이나 커다란 진드기들을 쫓아버리려고 소리를 질러대었다. (1권, 151쪽)

이념과 그것조차도 넘어서는 미국 등 강대국의 이익 추구하고 그리고 전쟁의 가공할 폭력성은, 병사들의 죽음을, 저마다의 꿈과 희망과 절망으로 채워진 그들의 실존을 한갓 기호로 치환하거나 무화시킨다. 이에 대한 한기주의 분노와 고뇌를 깊이 파헤침으로써 이 작품은 월남전 소설의 새 영역을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소재로서의 월남전에 갇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달되는 물질세계에 정복”되고, 관습적 통념에 젖은 주변의 생각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야 하며, 조직과 제도의 틀 속에서 살아야만 하기에 “영혼을 찾아가는” “가장 크고 위대한 추구”의 길을 걷지 못하고 타협하고 좌절해야만 하는, ‘생식 불능’의 ‘팔태충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점검에 연결시킴으로써, 현대인의 일반적 삶의 양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반제국주의 의식 형상화한 작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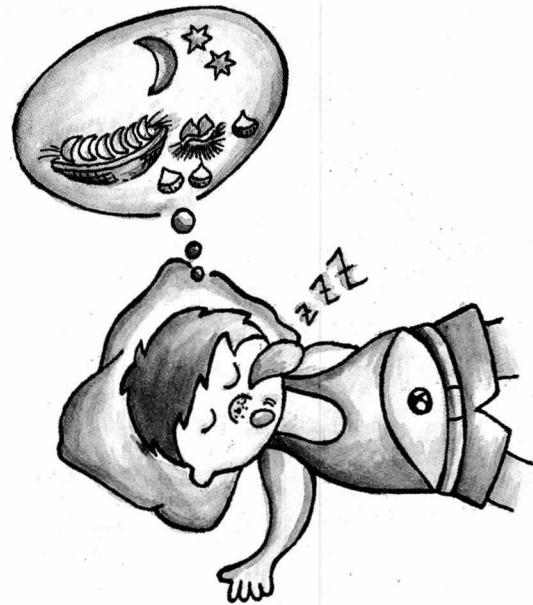
「하얀 전쟁」의 이같은 측면은 2, 3부의 중심인물인 채무경 상병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그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동료들을 찢러죽이고, 죄책감 때문에 대열에서 이탈, 정글의 미아가 되고 만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방기하고 만 것인데, 우연한 살인은 단지 계기일 뿐,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극단적 절망의 몸부

림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왜 나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 시간에 전혀 원하지도 않는 장소에 와 있으면서 전혀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해야 하며, 그 상황에서 전혀 나의 선택이 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서 나 혼자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하는 참담한 피해의식이 느껴졌던 것이지. 나는 그런 상황이 싫었고, 나를 그 상황에 데려다 놓은 사회와 조직이 참을 수 없어졌어. 그리고 그 중요심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자의를 따라, 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을 했던 거야. 그 형벌의 나라를 떠나 자유를 찾겠다고 말야. (2권, 306쪽)

자아의 주체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구가 궁극의 요인이었던 것이다. 안정효의 대표작인 「미늘」의 참주제이기도 한 이같은 주제를 월남전이란 복잡한 성격의, 그리고 전쟁이란 극적인 상황 속에서 탐구함으로써 이 작품은 훌륭한 성취를 거두었다.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말단 소총수에 불과한 한기주에게 분수를 넘어서는 시야를 부여함으로써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점, 과거의 전쟁체험과 현재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 증발했던 채무경과 한기주의 25년 후 만남이란 설정이 지나치게 억지스럽다는 점, 한기주와 월남 여성 하이의 사랑과 재상봉이 감상조에 몰들어 참주제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

이상으로 월남전을 다룬 몇 작품을 거칠게 살펴 보았는데 월남전 소설의 수준이 만만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약의 밑바탕이 단단하게 다져진 것이다. 이밖에도 지면 때문에 검토하지 못한 이상문의 「황색인」, 이원규의 「훈장과 굴레」 등의 중요한 작품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세상천지 화안하게 밝혀주는 책

쉬잇,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무언가 들리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룬 서울이 뒤척이는 소리

고향 갈 날 머지않은 도심의 마음들이

주섬주섬 밤 붓짐을 싸고 있습니다. 마음 급한 김 아무개는

벌써 동네 앞 냇둑을 타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 모양도 가지가지 제 멧에 겨운 송편들이

소쿠리에 들어차듯, 둘러앉은 마음들이 정에 한껏 녹아들고

한가위 보름달이 세상천지 화안하게 밝혀줍니다.

송편을 빚어내듯 정성을 다하여

세상 밝게 비추는 책을 만들어 내는 것

저희 출판전문 제작대행사 '한술'의 변치 않는 꿈입니다.

한술기획
한술기획

원고 은행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함께 가을이 깊어갑니다.

원고지 칸을 메우는 당신의 눈빛도 더욱 머물어가고 있습니다.

출판의 기회를 만드십시오. 에이전시 한술은 언제나 당신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